

왕의 겸손한 개선식

막 11:7-10

막 11:7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어 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.

예수님께서서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.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! 하고 외친 것이 종려주일의 어원입니다.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받으신 **겸손한 영광의 순간**이자, 죽음으로 이어지는 **고난의 시작**이었습니다. 여기에 담긴 세 가지 이미지와, 예수님과 군중 사이의 세 가지 다른 관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

첫번째 이미지는 “나귀” 입니다. 당시 로마 황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금의환향할 때 멋지게 치장한 백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. 반면, 예수님께서서는 볼 품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. 예수님께서서는 겸손을 상징하시기 위해서 볼 품 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. 그렇게 하심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. (슌 9:9)

두번째 이미지는, 군중들이 깔은 겹옷 카펫입니다. 겹옷으로 깔은 카펫은 로마 황제가 걸었던 레드 카펫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박한 것이었습니다. 이 또한,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.

세번째 이미지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. 종려나무는 구약시대부터 **기쁨과 승리**를 상징하였습니다. (레 23:40, 느 8:15) 왕이나 정복자가 귀환할 때 이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. 군중들은 예수님을 개선하는 로마 황제처럼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왕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.

예수님과 군중들은 서로 짝 것처럼 예수님을 로마 황제와 같이 환영했지만, 속마음은 굉장히 달랐습니다. 먼저, **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** 들어가셨고, 군중들은 **자신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환영**했습니다. 두번째 차이점은, 군중들은 **로마 황제와 같은 영광스런 왕의 모습을 기대**하는 데 비해, 예수님께서서는 끝까지 **겸손한 왕의 모습을 추구**하셨다는 점입니다. 세번째 차이점은, **군중들은 외적 모습에 집중**하는 데 비해, **예수님은 내적 순결함을 더 크게 바라보셨다**는 점입니다.

영광과 고난이 혼재된 이 종려주일을 맞아, 우리도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지 깊이 깨닫길 소망합니다. 먼저, 예수님이 보여주신 **순종과 섬김의 본**을 배워야 합니다.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. 인생에 가장 쓰라린 고통은 배신의 고통입니다. 예수님은 배신 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그들을 품으셨습니다. 아직 우리 속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용서하는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. 두번째로,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모습은 **겸손**입니다. 겸손은 쉽게 얻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. 겸손한 척 하기는 쉽습니다만, 진정으로 그 내면으로부터 겸손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우리도 겸손해 지려면, 나귀 타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
그런데, 기독교의 역설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. (빌 2:6-11) 진짜 영광은 내가 얻으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, 주께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.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.

* 헨리 모리슨 선교사 이야기

적용을 위한 질문

1.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, 배신자까지 품으신 모습에 잘 나타납니다.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권면에 응하실 수 있으십니까?
2.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은 나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. 겹옷으로 깔고, 속마음까지 겸손 하려면 우리는 어떤 것부터 실천해야 할까요?
3. 내가 스스로 영광을 추구한 적은 없으신가요? 어떻게 하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?